

회원사동향

ABB 코리아, 아시아본부로 급부상

전력설비 자동화사업 전문업체로 스위스 취리히에 본사를 두고 있는 브라운보베리(ABB)코리아가 아시아 주요 국가에 전력설비 등의 제품을 공급하는 핵심공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ABB코리아는 지난해부터 2만여평의 천안공장에서 생산되는 전력설비와 자동화제품을 일본을 비롯해 홍콩, 싱가포르 등 동남아, 호주, 뉴질랜드 등 10여개국 현지법인에 공급하고 있다.

ABB코리아가 공급하는 제품은 배전반과 차단기, 몰드브레이크 등으로 연간 매출액만도 600억원대에 달한다.

ABB코리아가 아시아 국가의 전력설비와 자동화제품 생산허브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은 ABB본사가 아시아 생산시설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 ABB코리아는 몇 개의 핵심공장을 중심으로 아시아 주요국가에 제품을 공급해 생산성 향상은 물론 유희시설을 줄이는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비츠로테크, 중국 현지법인 설립

전기차단기와 개폐기를 생산하고 있는 비츠로테크(대표 정연수)는 지난 14일 중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비츠로테크에 따르면 중국 장쑤(江蘇)성 우시(無錫)시 국가 신기술개발구에 앞으로 5년 동안 현물 210만달러, 현금 100만 달러 등 총 310만 달러를 투자해 우시비세룡기전유한공사를 설립한다는 것이다.

또 초기에는 현지공장을 임대해 부품을 조립 생산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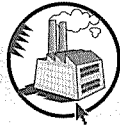
연말에 공장이 완공되면 자체 설비를 갖추기로 하고 장쑤성 우시시 국가 신기술 개발구에 2만3,000평 규모의 공장 부지를 매입기로 했다.

한편 비츠로테크는 초기에 주로 주상개폐기(PGS), 전원전환개폐기(ATS)를 생산해 판매제품을 다양화하며, 판매지역은 화둥, 북방을 거점으로 중국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LG산전, 공고교사 현장실무교육 실시

LG산전이 학생들의 여름방학을 이용해 전국의 공업계

고등학교 교사 100여명을 자사 연수원으로 초청해 현장실



회원사동향

무교육을 실시한다.

LG산전(대표 김정만)은 5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충북 청주 소재 연수원에서 전국 10개 시·도의 공업계 교사 100여 명이 참가한 신학 연계 교육프로그램을 개설 공장자동화기와 PLC(논리연산제어장치), 전력용기기에 대해 교육한다.

이번 교육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산업체의 자동화·전력 신기술을 일선 교육 현장에 전파하기 위해서다.

LG산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 후 산업현장에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년 방학기간을 이용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인천 청학공업고등학교 이상진 교사는 “교육내용이 산업제품의 신기술을 전파하는 것이어서, 자칫 기술발전의 흐름을 뒤따라가기 힘든 교육계에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전기연구원, 배전급 전력케이블 시험설비 구축

한국전기연구원(원장 권영한) 전기부품소재신뢰성평가센터가 배전급 전력케이블 연구시험설비를 구축했다.

전기부품소재신뢰성평가센터(센터장 신영준 박사)는 최근 과학기술부 연구기반 구축사업으로 22.9kV를 포함한 배전급 전력케이블에 대한 연구시험설비를 구축, 국내 배전급 전력케이블 품질향상과 국산 케이블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전기부품소재신뢰성평가센터는 2000년 6월부터 2년 동안 총 11억4,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와 에디슨조명회사협회(AEIC) 등이 제시하는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배전급 전력케이블 연구시험설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기연구원 전기부품소재신뢰성평가센터는 국제수준의 측정불확도와 소급성을 확보함으로써 전력케이블에 대한 한국전기연구원의 측정 및 시험평가 결과에 대해 국제적인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 전력케이블 연구시험설비를 확보함으로써 전력케이블 관련 연구의 활성화는 물론 공인시험기관으로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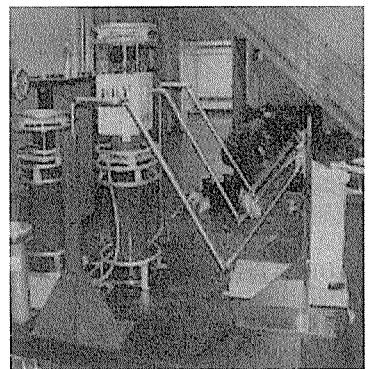
한편 한국전기연구원은 전력케이블 연구시험설비 구축 사업을 통해 전력용 케이블의 전기적 특성평가를 위한

1pC(Pico coulomb) 측정 시험장을 확보했으며, 전력케이블의 교류파 과전압특성 및 내전압특성 분석이 가능한 시험용 600kV 단말장치, 부분방전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디지털방식 부분방전시험설비 등을 구축했다.

또 셰링 브리지(Schering Bridge), 마이크로 옴측정기(Micro Ohmmeter), 투영기, 자동계측운전장비 등 첨단 정밀측정장치를 갖춰 케이블 생산업체의 제품개발과 성능평가를 지원하고, 산업체·연구소·대학 등과 케이블 연구시험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해 기술개발 촉진 및 품질향상을 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전력케이블의 품질향상에 따른 고장 감소로 전력수급의 안정화와 전기품질의 고급화 등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국산 케이블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수출증대를 꾀할 수 있는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문의 : (055)280-1630





회원사동향

전기연, 중국과 PLC 협력키로

한국전기연구원(원장 권영한)은 최근 중국 사천성의 전력시험기술연구원(원장 周漢俊)과 전력선 통신(PLC) 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전력선 통신분야의 인력과 정보를 교류하고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정을 계기로 국제공동연구를 하는데 필요한 연구시험장비의 공동 활용과 전기연구원과 (주)젤

라인(사장 이기원)이 축적하고 있는 저압 및 중고압 전력선 통신기술의 이전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젤라인은 중국 사천의 전력시험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현지에서 전력선 인터넷 상용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성진전기, 배전용 변압기 국내 첫 日 수출

변압기를 전문으로 만들어 온 성진전기(대표 이종한)가 국내 중소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일본에 배전용 유입변압기를 수출했다.

성진전기는 지난 8월 28일 일본 고베제철에 1,000kV 변압기 4대를 수출했으며, 신일본 제철에도 오는 10월 중순경에 3대의 변압기를 수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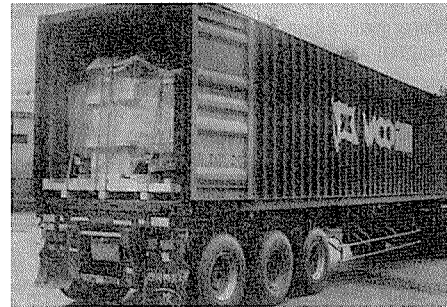
성진전기는 이번 변압기 수출을 위해 일본표준규격(JIS, JEC)에 맞춰 제반시험 및 절연유 가스분석 등 까다로운 시험과정에 합격했다.

성진전기의 한 관계자는 “처음 수출 물량은 많지 않지만 까다로운 일본시장에 진출한 만큼 앞으로 일본 등 선진국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본 수출은 KOTRA를 통해 국내 변압기 생산업체 중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로 소개되면서 성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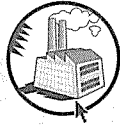
지난 1970년 설립된 성진전기는 32년간 변압기 한 품목을 생산하며, 설비확충과 연구개발에 꾸준한 투자를 해 국내 변압기 업계에선 최고 품질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LG산전, 中공략 ‘초읽기’

LG산전이 ‘중국을 제2 내수시장화’ 한다는 경영비전을 세우고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나섰다.

이를 위해 우선 LG오티스의 중국 다례법인장을 지낸 중국지역 전문가인 권영국 상무를 중국지역장으로 영입했다.



회원사동향

이와함께 전력기기사업부 내에 있던 다레법인(생산법인)과 해외사업부 소속인 상하이법인(판매법인)을 중국 지역장 관할로 변경하는 등 해외사업 조직을 대폭 개편했다.

또 해외사업부에서 관장하던 상하이지사 베이징지사 광주지사를 중국지역장 관할로 이전시켰다. 대신 해외사업부에 해외영업팀과 기획팀을 신설하고 기존 도쿄지사와

미국 뉴저지지사를 관장하도록 했다.

LG산전은 현재의 1개 지역장, 2개법인, 3개 기술지원센터인 중국내 조직을 오는 2006년까지 1개 지역장, 5개 법인 및 6개 기술지원센터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국지역 매출을 지난해 3000만달러에서 오는 2006년까지 3억2000만달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넥상스, LAN마크 게이블링 시스템 - 英 정보통신청사 공급

넥상스가 브리티시 텔레콤 등과 함께 영국 정보통신청사에 고성능 LAN을 공급한다.

넥상스는 영국 정보통신청사가 필요로 하는 음성 및 데이터를 공급하기 위해 자사의 고성능 LAN마크 게이블링 시스템을 공급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넥상스와 유니시스, 브리티시텔레콤 등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현재 유럽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 중 하나로 꼽힌다.

유니시스는 넥상스의 LAN 게이블링 시스템을 영국 첼렌

햄에 위치한 영국 정보통신청사에 설치하게 된다.

넥상스는 이번에 공급할 케이블 솔루션이 업그레이드와 이동 및 수정 등이 편리해 안정적인 네트워크 하부구조를 가능케 하는 첨단 케이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넥상스 한국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에 고성능 고품질 게이블링 시스템을 공급해 사업의 성공적 완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정보통신청은 지난 46년 설립돼 국가 안보와 방위, 외교 및 경제 정책을 지원하는 국가기관이다.

LG산전 · 젤파워, DLC기기 환경시험 통과

LG산전(주), (주)젤파워의 IT제품이 직접부하제어(DLC) 사업에 따른 환경평가를 성공리에 통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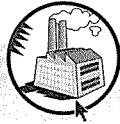
에너지관리공단은 한국전기연구원에 의뢰, 지난 6월 기술규격시험을 마친 LG산전(주), (주)젤파워 제품에 대해 환경시험을 마친 결과 적합관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직접부하제어장치(EMD) 부하제어단말장치(LCU)에 대해 실시한 이번 환경시험은 KS기준 뿐만 아니라 국제기술 규격인 IEC를 적용, 엄격하게 실시했다고 에너지관리공단

측은 전했다.

이로써 이들 회사의 제품은 향후 에너지관리공단과 협약한 수용가 설비에 본격 설치될 예정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의 한 관계자는 "이들 기기는 전반적인 기술력과 기기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는 향후 전력시장 참여를 고려해 개발된 것"이라고 말했다.



회원사동향

케이디파워, KT 마크 획득

(주)케이디파워(대표 박기주)의 '22.9kV 수용가용 웹기반 전력관리기술'이 3분기 국산신기술(KT마크) 인정기술에 선정됐다.

케이디 파워는 기존 지능형변전실에 이 기술을 적용, iKEN 서비스를 개시하고 본격적인 전기안전관리서비스 사업을 진행중이다.

케이디파워의 iKEN 서비스는 월 1만원으로 전기시설에 대해 원거리에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무선 인터넷장비를 갖출 경우 이동중인 차 안이나 지하철에서도 전기설비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또 누전 등 이상상태가 발생할 경우 원격제어를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세계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전력모니터링시스템과 자기진단 기능이 들어있는 지능형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기재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케이디파워는 서비스 가입자가 올해 말경 2500개소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3만개소 가입을 목표로 삼고 있다.

케이디파워 관계자는 "수만개소가 가입할 경우 이를 산업별, 지역별, 그룹별로 묶어 관리하는 국가적 에너지절감 시스템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미전자, 안정기 교체 가능 T5등기구 출시

미미전자(주) (대표 원종만)가 안정기만 별도로 교체할 수 있는 T5형광램프용 초슬림 등기구를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T5형광램프용 등기구는 기구와 안정기가 일체화돼 있어 안정기의 수명이 다했거나 불량일 생겼을 경우 등기구 전체를 교체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에 미미전자가 내놓은 제품은 반사판의 나사만 풀면 안정기를 교체할 수 있도록 개발, 등기구의 수명을 늘릴 수 있다. 또 제품 자체가 슬림하기 때문에 싱크대의 부

분 조명등 협소한 공간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8W T5형광램프를 사용해 기존 32W에 비해 4W를 절전할 수 있으며 광효율도 10% 높다.

미미전자는 앞으로도 진열장 조명이나 인테리어용으로 이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미미전자의 슬림형 매입등기구도 최근 소방검정을 통과, 주문이 크게 늘고 있다. 이 제품은 화재나 정전 등의 상황에서 비상조명 등으로 사용이 가능토록 니켈카드뮴 배터리를 내장하고 있다.